

『湖洞西洛記』 一考

백민자(전북대)

<목 차>

- | | |
|--------------------|-------------------------------|
| I. 서론 | III. 『湖洞西洛記』에 드러난 금원의
의식세계 |
| II. 『湖洞西洛記』記述의 특징 | 1) 강렬한 傳世 욕구 |
| 1) 풍부한 전고와 비판적 실증 | 2) 여성의식의 강화 |
| 2) 감각적인 표현과 정치한 묘사 | IV. 결론 |

<국문 초록>

『湖東西洛記』는 조선최초의 여성 유람기라는 단선적인 평가만으로는 규정지을 수 없는 독보적이었던 금원의 자의식 세계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당시 대부분의 여성들과 달리 금원은 남녀 부동의 제 현실에 대해 여행이라는 독자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다. 뿐만 아니라 당대를 살아가는 여성으로서의 한계와 그에 대한 적극적인 극복 의지까지를 보여주고 있다. 금원에게 여행은 천지 자연과의 조화를 위한 실천적 과정이었으며, 현실을 향한 적극적인 자아 표출의 방법이였다.

여행의 기록에 있어서 화려한 색채어를 통해 실경에 대한 감각적인 묘사를 보여주는 것은 물론 풍부한 전고와 실제적인 고증을 통해 자신의 지적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것에 주력하고 있다. 나아가 유람의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서 까지 자신의 존재를 확인받고자 했던 강렬한 전세 욕구, 『湖東西洛記』 편찬 과정에서 보여준 삼호정 시사 동료들과의 여성 연대의 의식은 시대를 초월한 것이었다.

금원은 강인한 자의식의 확인과 그 표출 과정에서 보여주는 독자성만으로

도 시대를 압도하고 있다. 『湖東西洛記』는 이러한 작가의식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당대 사대부가 여성 문인들이 보여주었던 소극적이고 내부 수렴적인 여성 의식이 아닌 적극적이고 외부 발산적인 여성 의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 문학적 가치와 의의를 새롭게 평가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적극적 자아 표출, 색채어, 전고와 실증, 전세 욕구, 여성연대의식

I. 서론

18,19세기 조선은 급격한 사회, 경제적 변화와 그로인한 문화적 격변기였다. 문학계에서도 새로운 시대를 향한 다양한 변화와 모색이 시도 되었는데 지역적, 당파적, 신분적 유대관계를 기반으로 한 문학 창작의 집단성, 문학 담 당계층의 확대와 다양성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양반 사대부들 뿐만 아니라 서얼집단이나 중인층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확대되어 그들 또한 시사를 결성하고 시적인 교양을 쌓는 등 다양하고 활발한 문학 활동을 전개하기에 이르렀다.

문학계 전반에 걸친 변화의 흐름은 여성 문학계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조선 전기에는 극소수에 한정되었던 여성의 문학 활동이 이 시기에 이르러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작가군의 출현, 문집 편찬과 그에 따른 작품의 양적 증대, 詩社의 형태를 갖춘 문학 집단의 등장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단순히 표면적인 변화를 넘어서는 여성 문학의 내적 성장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그 결과 여성 작가들 사이에서도 여성의 자의식을 토대로 주체적인 목소리를 담아내는 작가들이 속속 등장하게 되었다. 임윤지당, 남의유당, 서영수각, 강정일당, 김삼의당을 비롯한 일군의 사대부가 여성들의 문집이 간행되었으며, 김금원을 중심으로 김운초, 박죽서, 경산, 경춘 등 소설들이 주축이 되었던 여성 최초의 시사인 삼호정시사의 문학 활동 등이 그러한 예이다.

본고는 이들 가운데 삼호정시사의 중심인물이었으며, 조선 여성들 가운데

최초로 남장을 한 채 금강산을 유람하였던 김금원¹⁾의 『湖東西洛記』²⁾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湖東西洛記』는 여성 최초의 산문 유람기라는 문학사적 의의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작가 금원이 여성으로서의 당찬 자의식을 직설적으로 표출해내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선행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아왔다. 그런데 근간의 논의들³⁾ 대부분은 논의의 쟁점을 어디에 두느냐의 차

-
- 1) 김금원(1817-?) 원주사람, 14세 때인 순조 30년(1830)에 금강산 유람을 떠났으며, 돌아온 후 圭堂學士 김덕희의 소실이 되었고, 헌종11년(1845)인 29세에 龍瀾尹에 제수된 남편을 따라 임지에 갔다가 정미년(1847)에 서울로 돌아왔다. 이후 용산 삼호정에서 죽서, 운초, 경산, 그의 동생인 경춘과 함께 자주 모여 시회를 열었으며, 철종 원년(1850)에 『湖東西洛記』를 탈고 하였다.
 - 2) 허미자편, 『한국여성시문선집』 5, 국학자료원, 2004.
금원이 쓴 여행 기록이다. 14세 때에 남장을 하고 재천(湖)을 거쳐 금강산(東)을 유람한 후 김덕희의 소실이 되어 의주 부윤이 된 남편을 따라갔다(西), 의주에서 서울로 돌아와 용산 삼호정(洛)에 거하게 된 때까지의 유람과 문견을 기록한 것이다.
 - 3) 김지용이 최초의 여류시단으로서의 삼호정 시사에 주목하고 그들의 작품을 분석하면서 금원의 『湖東西洛記』를 소개한 이래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들은 과격에 가까운 금원의 작가의식을 다룬 것이거나 『湖東西洛記』의 문학적 의미, 혹은 『湖東西洛記』에 실려 있는 古詩文에 대한 분석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다.
김지용, 「삼호정 시단의 특성과 성격」, 『아세아 여성연구』 16, 숙명여대 아세아 여성연구소, 1977, 105~142쪽.
김미란, 「조선 후기 여류문인 연구」, 『국어국문학』 117, 국어국문학회, 1996, 281~302쪽.
손영화, 「조선조 여성되기의 새로운 모색- 김금원의 <호동서낙기>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39, 국어국문학회, 2004, 164~186쪽.
안난옥, 『김금원의 <호동서낙기>연구」, 성균관대 석사학위 논문, 1999.
이효숙, 「<호동서낙기>의 산수문학적 특징과 금원의 유람관」,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0,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7, 175~209쪽.
차옥덕, 「김금원의 시에 대하여」, 『고전문학연구』 15, 고전문학연구회, 1999, 317~358쪽.
김관식, 『조선조 강원 여성 한시문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장인에, 「삼호정여인들의 한시 연구」, 『세종어문연구』 제25집, 세종어문연구회, 2007, 41~58쪽.
양 희, 『삼호정시단의 한시 연구』, 중부대 박사학위 논문, 2008.

김미란과 손영화는 당시 여성으로서의 과격적인 자의식을 표출해낸 작가 김금원을 논의의 쟁점으로 삼았다. 김미란은 금원은 가속화된 신분제 붕괴과정에서 사대부가 여성들의 작품에서 보이지 않는 진술한 감정을 유려한 시어로 형상화 하였다고 해석하였으며 손영화는 첩실 신분이라는 주변성을 긍정적으로 수렴한 금원이 기녀로서 지녔던 개방성과 사대부 부인으로서의 경제적, 신분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최초의 여류시단이라는 화려한 발자취를 남긴 것으로 보았다.

안난옥, 이효숙은 『湖東西洛記』의 문학적 의의를 규명하고자 했는데, 두 논문 모두 산수

이가 있었을 뿐 『湖東西洛記』 전반에 걸친 금원의 주체적 자아 인식이라는 면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왔다. 이러한 현상은 작품 자체에 대한 분석 보다는 전래를 찾아 볼 수 없었던 과거적인 금원의 사상과 자의식에 지나치게 주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작품 자체를 분석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유람기로서 『湖東西洛記』가 갖는 記述상의 특징을 고찰해 본 다음, 유람 외적인 기록을 통해서 드러나는 금원 의식세계의 특성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또한 작가 금원이 이 두 가지 특성을 어떻게 작품으로 구체화 시키고 어떤 방식으로 조합해 내는지를 조명하여 『湖東西洛記』가 갖는 문학적 의의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Ⅱ. 『湖洞西洛記』 記述의 특징

『湖東西洛記』는 14세의 나이로 남장을 하고 금강산 유람을 결행했던 김금원의 유일한 작품집이며 유람을 마치고 20년이 지난 1850년에 이르러서야 탈고되었던 기행문의 일종이다. 그 구성은 크게 작품 전, 후반부에서 다루고 있는 작가의식에 관한 부분과 그 사이에 기록된 湖, 東, 西, 洛 지역의 기행에 관한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따라서 각 부분에 관한 고찰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어느 한 부분만을 언급해서는 작품에 대한 충실한 분석 자체가 불가능 할

문학으로서의 『湖東西洛記』를 집중 조명하였다. 안난옥은 여성 최초의 산수유기로서 여성적 감성의 표출, 건문체험의 섬세한 묘사 등을 『湖東西洛記』의 특징으로 규정하고 곳곳에 한시를 활용하여 그 서정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효숙은 『湖東西洛記』의 편찬은 금원 자신이 남성 사대부 문인과 똑같은 혹은 문학적 우월성의 소유자임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시도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옥덕, 김관식, 장인애, 양희 등은 『湖東西洛記』에 실린 詩文의 분석과 가치 규명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였다. 차옥덕은 금원의 시들은 恨의 정서를 뛰어넘어 새로운 여성 정체성을 세웠다고 분석하였으며, 김관식은 여성적 호방함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장인애는 조선의 사회 현실이 극복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음을 인지한 금원이 현실을 수용한 것으로 파악했으며, 양희는 금원의 시에는 삼호정 시사의 다른 작가들에게서 보이는 입에 대한 그리움이나 내적 갈등을 토로한 것이 없고 자연 풍광을 노래한 시가 압도적인데 이는 자신이 찾는 세계는 현실 속에서 찾아야 함을 인식한 결과라고 보았다.

수밖에 없다.

『湖東西洛記』는 단순히 최초의 여성 유람기라는 희소성 외에 금원이 활동하던 조선 후기 여성 문학계의 한 주류를 이루었던 내방가사의 기행문들 내지는 남성의 기행문들과는 다른 표현상의 특성을 보여 주고 있다.

1. 풍부한 전고와 비판적 실증

기녀는 지배층인 남성의 언어로 지배층이 추구하는 미의식과 이데올로기를 담아내도록 단련되어 온 존재였다. 따라서 기녀 출신이었던 금원이 당시 여성 글쓰기의 일반적인 형태였던 한글로 된 내방가사가 아닌 한문으로 『湖東西洛記』를 기록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湖東西洛記』는 단순히 한문으로 된 여성 최초의 유람기라는 점 외에도 작가 금원이 의도했던 몇 가지 표현상의 특징이 있다.

언급한 것처럼 금원이 활동하던 당시 일반적인 여성 기행문의 형식은 내방가사였다. 기행산문인 의령 남씨의 <의유당일기>⁴⁾를 제외하면 <부여노정기>⁵⁾ <이부인기행가사>⁶⁾ <금행일기>⁷⁾ 등 대부분의 작품들이 내방가사 형식으로 전해진다. 이 작품들은 모두 한글로 기록되었으며, 일회적, 우연적이었던 당시 여성들의 여행을 다루고 있다. 또한 그 내용은 여행의 과정에서 얻은 단편적인 사실의 전달 내지는 그에 대한 감상이 중심을 이루었다.

이에 비해 『湖東西洛記』에서 금원은 여행의 계획과 실행 모두를 철저히 자신이 주도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단편적인 사

4) 의령 남씨(1727-1823)의 작, 1772년(영조 48) 남편이 함흥판관으로 부임할 때 같이 가서, 그 부근의 명승 고적을 탐승하며 지은 기행(紀行)·전기(傳記)·번역 등을 합편한 문집으로 원명은 《意幽堂關北遊覽日記》이며 《관북유람일기》라고도 함.

5) 정부인 연안 이씨(1737-1815)의 작, 정조 24년(1800) 3월 아들 태좌가 부여현감으로 부임하게 되면서 이씨 부인 내외가 함께 부여까지 동행하는 과정에서 느낀 감회를 2년여가 지난 뒤 정조 26년(1802) 1월 태좌가 승정원 수찬으로 다시 전임되는 소식을 듣고 쓴 작품.

6) 광주 이씨의 작, 1821년 사대부가의 한 여성이 청주 덕천을 거쳐 충청도 공주로 내려와 은진 미륵을 구경하고 전라도 여산과 장성을 지나 나주읍성을 구경한뒤 나주 시랑면 회진촌에 도착하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작품.

7) 은진 송씨(1803-1860)의 작, 1845년 시숙이 금영(지금의 공주) 판리로 부임한 것을 계기로 공주의 관아에 다녀온 체험을 서술한 작품.

실의 전달이나 감상 보다는 다양한 자료와 풍부한 전고를 제시하여 자신의 지적 수준을 극대화 하는 것에 주력하고 있다.

팽려호의 입구에 석종이 있었는데 酈道元은 물과 돌이 서로 부딪쳐 큰 종이가 울리는 듯한 소리를 낸다고 하였고 李渤은 못 가에서 두 돌을 얻어 두드려 들어보니 남쪽 소리가 호북의 음을 가져 청월하다고 하였다. 소동파는 기문을 지어 이를 논변하여 역도원이 옳고 이발의 고루함을 비웃었다. 내가 일찍이 의아하게 여겨 왔었는데 오늘 이 돌을 보니 과연 종소리가 있어 비로소 이발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니 동파가 이를 보지 못한 것이 한스럽다. 돌 벽에는 석순이 많이 매달려 있어 그것을 따서 잡으니 마치 봄눈이 해를 본 듯 녹아 없어졌다. 두 굴이 같게 생겼으니 기이한 광경이라 할 만하다.⁸⁾

제천 의림지를 둘러보는 것으로 금강산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던 금원이 단양의 청산곡구와 사인암을 거쳐 영춘에 있는 금화굴, 남화굴을 방문했을 때의 기록이다. 굴속에서 중유석과 석순을 보는 기이한 체험을 하게 되자 소동파의 기문인 「石鐘山記」⁹⁾를 전고로 제시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혀 보이고 있다. 금원은 소동파가 석종에 대해 언급했던 역도원과 이발 두 사람의 말을 두고 역도원만이 옳고 이발은 고루하다고 비웃었다는 이야기를 의심하였다. 그러다 자신이 직접 금화굴, 남화굴에 와서 돌이 종소리를 내는 것을 보고는 오히려 이발의 말이 거짓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즉, 소동파가 그것을 보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며 당시 많은 문인들이 사실에 대한 실증적인 반성이나 비판 없이 관습적으로 정보를 그대로 답습하였던 세태를 비판하고 나아가 대시인인 소동파의 견해에 대해서까지도 당찬 비판을 서슴지 않고 있다.

다양한 정보의 수집과 실증적인 확인을 통한 지적체험의 확대라는 금원 글

8) 『湖東西洛記』 彭蠡之口有石鐘焉 酈道元以爲水石相搏 聲如洪鐘 李渤得雙石於潭上 扣而聆之 南聲函胡 北音清越 蘇東坡作記以辨之 以酈元爲是而笑之 李渤之誣 予嘗疑之 今見此石 果有鐘聲 始知李渤之不誣 而恨不令東坡見之也 石壁多縣石筍 摘而握之 如春雪見日 融液立盡 兩窟同然 足爲奇觀也

9) 蘇軾, 「東坡集」 권33, 『蘇東坡全集』 4, 영인본, 경인문화사, 1983, 117~120쪽.

쓰기의 특징은 『湖東西洛記』 전 편을 통해 드러나 있다. 방문하는 곳의 지명이나 사찰의 유래에서부터 음식을 마주하면서까지 보여주는 다채로운 자료와 전고의 제시는 곳곳에서 금원이 자신의 현학적인 면모를 과시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붉은 기와와 푸른 기둥이 반공에 높이 솟았고 아름다운 붉은 빛 난간들은 구름 밖에 비추어 휘황하고 영롱하게 압록강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구연성의 저녁 구름이 멀리 구봉성에 이어지니 연계 산천이 눈이 다하는 지점에서 희미 하기가 안개 낀 나무 같았다. 사람들이 모두 이 또한 '계문의 안개 낀 나무(계문연수)라 말한다.....(중략)

나는 항상 연경 팔경이 어찌 기백리 연계 땅에 있을까를 의심했었는데 연사를 읽고서야 비로소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연경 서쪽 성의 덕순문 밖 칠팔 리에 계구라 부르는 흙 언덕이 광야 가운데 높이 솟아 있는데 광활하여 가로막힌 것이 없고 안개 낀 나무가 천 줄로 총총히 늘어서 끝이 없다. 옛날에는 성문이 있어 계금문이라 불렀는데 그 때 비로소 '계문의 나는 비(계문비우)'라 일컫게 되면서 연경 팔경 가운데 들어갔다. 명나라 대 비우(우)자를 고쳐 '연수'라 이름 했으며 건륭황제가 '계문연수' 네 자를 써서 칙령으로 비를 세웠다..... 우리 나라 사람들이 그 혼동된 명칭을 그대로 써서 사신들의 수레가 연경 5백 년에 서로 이어졌고 또한 역관 같은 이들은 수십 번씩 왕래하여 종신토록 그 땅을 밟았는데도 연수를 아는 자가 있다는 것을 아직 듣지 못했으니 도리어 탄식할 만하다¹⁰⁾.

금강산 유람을 마친 후 김덕희의 부실이 되었던 금원이 남편의 부임지였던 의주에서 생활할 때의 일이다. 開市하는 것을 보기 위해 통군정에 올라서는 눈 아래로 보이는 화려한 도읍과 市廛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연경팔경 가운데 하나인 계문연수¹¹⁾를 끌어와서 그 연원에 관해 논의하

10) 『湖東西洛記』 朱堯翠棟 聳出半空 玉蘭朱攬 照耀雲外 影入鴨江 輝煌玲瓏 九連城暮雲遙連 九鳳城 燕薊山川 極目指點 依稀如烟樹 人皆曰是亦薊門烟樹余常疑燕京八景 豈在於幾百里遙薊之地乎 及見燕史而後始知其非也 燕京西城德勝門外七八里有土阜 曰薊丘 在曠野之中 矧然高起 軒豁無礙 烟樹千行 蔥鬱無際 舊有城門 故曰薊金門 時始稱薊門飛雨 而入於燕京八景中 皇明時改飛雨曰 烟樹 乾隆帝書薊門烟樹四字 勅碑而立之..... 我東人從而爲之辭 使車相接於燕京五百有年 並如譯官則或有往來數十次 終身跋履於其土 而未聞有知烟樹者 還可歎也

고 있는 부분이다.

수 백년의 세월 동안 계문연수라는 말은 그 정확한 위치와 유래에 대한 확신 없이 관용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금원은 수 십 번씩 중국을 왕래하는 사신들조차도 북경에 계문연수가 있는데 계구를 중심으로 한 연수가 왜 또 있는지, 계주만이 아니라 요동별 일대에 나타나는 ‘연수’도 계문연수라 불러야 하는 지에 대한 고찰 없이 그대로 써오던 당시 현실에 이의를 제기한다. 開市를 보려고 촛불을 밝혀 오른 통군정에서 눈 아래로 펼쳐지는 화려한 읍지의 풍경을 보고는 ‘연수’ 즉, 사막의 신기루 현상을 일컫는 이 말을 떠올려서는 그 황홀한 기운을 배가 시키고 있다. 나아가 계문연수라는 말이 단지 연경팔경의 하나를 지칭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연수가 일어나는 곳마다에 쓰이고 있는데도 무비판적으로 그 말을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탄식하고 있는 것이다.

『湖東西洛記』에서 보이는 수많은 전고와 고사의 활용, 또 그 때 마다의 상황과 교묘하게 어우러지는 경물에 대한 묘사, 그리고 감정의 정점에서 그것을 시로 풀어내는 형식상의 특징들은 당시 남성 사대부들이 즐겨 사용하던 기행문 쓰기의 방식이었다. 금원이 활동하던 19세기의 여성 기행 가사들은 거의가 한글로 기록되었으며, 자연경물에 대한 사실적인 느낌의 전달과 정서적 체험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금원은 사실적 체험이나 느낌에 치우치기 보다는 고사나 전고를 자연 경물에 연결시켜서 관념적인 의미를 부여하고자 했던 남성 사대부 글쓰기의 전형을 따르고 있다. 조선 후기의 여성 산문이 삶의 체험을 기록하는 것에 주력했다는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금원의 글쓰기는 자신의 지적 능력을 극대화 시켜 사대부 남성의 글쓰기 방식을 추구하고자 했던 작가의 의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11) 薊門煙樹 : 연경(북경) 팔경중 하나로, 연경에서 이를 거리에 계주가 있는데 이 곳에 나타나는 신기루를 말한다. 사막에서 안개가 일어나고 공중에서 숲 같기도 하고 나무 같기도 한 것이 나타나지만 가보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계문연수는 이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계성(薊城)의 서북에 있는 계구(薊邱)의 유지(遺趾)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처음에 비우(飛雨)라 이름 하였다가 영락(永樂) 연간에 비우를 연수(煙樹)로 고쳐서 계문연수라고 이름한 것이다.

2. 감각적인 표현과 정치한 묘사

『湖東西洛記』에서 금원은 다양한 자료와 풍부한 전고를 활용하여 자신의 지적 능력을 극대화 시켜 보여주고자 하였다. 그러면서 한 편으로는 감각적인 색채어 내지는 정치한 비유를 통한 사물 묘사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 표현의 다양성을 엿볼 수 있게 한다.

갑자기 버들 사이로 어부의 노래가 조금 들리고 멀리 낚시터 위에 한 노인이 푸른 사립에 푸른 도롱이를 입고 낚싯대를 드리우고 앉아 푸른 물결 가운데 물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이 보였다. 드디어 고깃배를 빌려와 소리나는 곳을 찾아갔다. 바람은 고요하고 물결은 평온하여 그림 같은 배에 앉으니 푸른 옥같이 깨끗한 물결이 완연히 연못 속의 보석 거울을 연 듯했다. 아름다운 마름과 박하 물풀과 물새는 하늘빛 구름 그림자 사이에서 나왔다 드러났다 하여 진실로 그림 속의 경치였다.¹²⁾

여정을 시작한 금원이 맨 처음 도착한 제천 의림지의 풍경을 묘사한 부분이다. 靑, 綠, 滄波, 碧, 水草 등 일관되게 이어지는 색채어의 나열이 눈에 띈다. 여행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을 자연에서 느끼는 감상으로 담아내기 위해 ‘푸름’을 연상시키는 다양한 색채어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출발에 앞서 여행의 당위성 확보를 위해 파격적인 자의식을 여과 없이 드러내었던 금원의 희망을 엿볼 수 있게 한다.

계급과 신분, 여성으로서의 불행을 토로해야 했던 금원이 새로운 세계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으면서 ‘푸름’이라는 색채어를 가져와 상상의 세계를 구체적으로 가시화하고 있다. 희망을 연상시키는 푸른색의 이미지를 가져와서 여성 현실에서 벗어나 신분, 계급, 남녀의 차별 없는 가상의 세계를 향해 가려는 자신의 의지를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12) 『湖東西洛記』 忽於楊柳間 微聞漁歌聲 遙見苔磯上有一老翁 靑篋笠綠囊 衣垂竿而坐 釣出金鱗玉尺於滄波之中 遂借來漁船 尋聲而往 風靜浪平 坐如 畫舫 碧玉澄波 宛開方塘寶鑑 菱藻薄荷 水草水鳥 出沒於天光雲影之間 眞 畫中景也

플짜기는 깊고 그윽하며 뾰족한 산봉우리는 빼어났다. 하나하나가 마치 부용화를 깎아낸 듯하고 기이하고 기이함이 마치 비단 병풍을 둘러 세운 것 같았다. 조그만 지름길은 돌고 돌아서 높은 바위 사이에 통하며, 가느다란 폭포에서는 물이 흐르고 좌우의 복사꽃은 활짝 피어 향기를 토해 낸다. 붉은 색과 푸른색이 서로 사이하여 푸른 잎사귀 사이에 그림자를 숨겼고 벌과 나비는 장난치며 놀면서 바쁘게 왕래하고 기이한 짐승과 새들은 듣기 좋은 소리로 멀리서 울고 있어 뜬세상 먼지를 끊어 버린다.¹³⁾

제천 의림지를 지나 단양의 청산곡구로 들어가면서 선암을 살펴보고는 그 주변 경관에 대해 묘사한 부분이다. 산봉우리마다의 특색을 언급하고는 그 사이로 난 지름길이며 바위 사이를 흐르는 폭포, 만개한 복사꽃, 시절을 알아분주하게 노니는 벌 나비, 그리고 온갖 짐승과 새소리에 이르기까지 금원 자신의 시선이 닿는 사물 하나하나에 감정을 이입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 편으로는 紅, 綠의 강렬한 색채 대비, 그 사이를 넘나드는 나비와 벌, 짐승과 새의 정치한 배치를 통해 자연 만물의 조화, 들짐승과 날짐승의 조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금원이 밝히고 있는 천지조화의 일부로서 자연, 그리고 자연의 일부로서 존재하는 생명체들 간의 조화와 융합을 구체화 시키고 있는 것이다.

금원은 『湖東西洛記』 서두에서 “飛潛動植奇形異狀之同與不同 莫非造化之迹也”라 하여 만물의 조화, 천지의 조화를 언급하였고 ‘男女不同’ 이하 허다한 不同의 양상과 그 조화에 대해 강조하였다. 또한 실제로 유람의 내용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자연과 인간, 동물과 식물, 천지와 우주의 조화를 가시화시켜 보여준다. 그 과정에 강렬한 색채어를 끌어와서 시각화하고, 세밀한 묘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이미지화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구령을 넘어 멀리 은선대를 바라보니 높은 절벽 깎아선 바위가 서북 사이에 서 있어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지 못 하겠으나 색깔은 푸르고 검어 효운동이라 이름했다. 절벽 사이에 드리운 폭포는 포목같이, 삶아 뺀 비단같이 계속 마다 흘러져 있어 십이폭포라 이름했다. 보랏빛 지초가 벌려있어 마치 장차

13) 『湖東西洛記』 洞壑幽邃 峰巒秀拔 箇箇如芙蓉之削出 奇奇如錦屏之環 立榮回微逕 通於巉巖之間 有細瀑涓流 左右桃花 爛開吐香 紅碧相間 隱映 於綠葉之間 遊蜂戲蝶 紛紛往來 珍禽怪鳥 啾啾遙鳴 斷絕浮世塵埃

진선을 만나 진연을 맺으려 하는 것 같았다. 붉은 해가 서산으로 지자 안개가 만 골짜기에 잠기고 숲에는 가랑비가 부슬부슬 내리니 산 계곡이 모습을 바꾸었다. 얼마 지나 달빛이 하얗게 빛나니 흡사 남전의 백옥과 창해의 명주가 유리병 가운데서 섞이어 비추는 것 같아 진실로 세간의 광경이 아니었다. 다음날 하늘이 밝아 산문을 조금씩 나가서 꽃나무 무더기 속을 가는데 향기로운 냄새가 옷에 묻고 맑은 바람이 천천히 일어났다. 멀리 넓은 바다를 바라보니 하늘과 한 가지 색이어서 곧 공중을 타고 바람을 몰아보려는 생각이 든다.¹⁴⁾

금강산 유람 중 십이폭포에 들어섰을 때의 정경이다. 깎아선 바위와 그 사이로 쏟아져 내리는 폭포, 온 산에 흩어져 핀 갖가지 지초들이 해 진후 내리는 가랑비에 젖고 그것이 다시 달빛에 비치면서 만들어내는 세계를 몽환적으로 그려 보인다. 여기에 금원이 만들어 내는 화려한 색감이 더해져 그림 같은 경치를 구체화 시키고 있다. 푸르고 검은 바위, 하얗게 쏟아지는 폭포수, 보랏빛 지초, 붉은 해, 하얀 달빛 등 색채어를 감각적으로 배치하고, 향기로운 냄새, 맑은 바람으로 이어지는 오감을 자극하는 어구들까지 자유자재로 구사하고 있다.

금원은 이렇게 감각적이고 섬세한 묘사를 통해서 자신이 꿈꾸는 이상향으로서의 선계를 구체화하고 있다. 마치 허난설헌의 유선시를 연상하게 하는 선계에 대한 열망은 『湖洞西洛記』 곳곳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체험적 실증과 풍부한 전고를 사용해 자신의 지적 재능을 극대화 시켜 보이고자 했던 금원이 다른 한편으로는 감각적이고 직관적인 자연 경물에 대한 완상과 그 몽환적인 표현을 통해서 현실에서는 이를 수 없는, 남성과 대등한 존재로서의 여성, 천지조화의 일부로서 자신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14) 『湖洞西洛記』 踰狗嶺望見隱仙臺 峻壁巖立於西北間 高不知幾許 色蒼且黑 名曉雲洞 壁間垂瀑 如白布練 散在谷中 名爲十二瀑 紫芝羅生 若將遇仙蹤而結眞緣矣 紅日西下 烟沈萬壑 林雨霏微 山谷變容 已而月光皎潔 恰如藍田白玉 滄海明珠 交映於琉璃壺中 誠非世間光景也 翌日天明漸出山門 行花木叢中 香帟襲衣 清風徐起 遙望滄海 與天一色 便有憑虛御風之想

Ⅲ. 『湖洞西洛記』에 드러난 금원의 의식세계

湖,洞,西,洛 지역에 대한 유람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하면 『湖洞西洛記』의 서두와 결말 부분은 금원 자신의 독자적인 사유방식에 대한 거침없는 논의의 장이다. 그는 남녀 부동의 현실을 직시하고 유람을 통해서 그 부당한 현실에 대한 극복의 의지를 표출했던 행동하는 여성이었다.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몇몇 사대부가 여성 문인들 중에도 독자적인 자의식을 보여주는 이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당대 여성 이데올로기에 대한 재해석과 내면화라는 다소 소극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수준이었다. 이에 비해 금원은 유람과 그 기록을 통한 자신의 존재감 표출이라는 적극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들과는 분명히 다른 자의식의 소유자였음을 알 수 있다. 즉, 다른 여성 문인들이 내부로 수렴하는 자아 인식 양상을 보여주었다면 금원은 외부로 발산하는 자기 주체성이라는 측면에서 독자성을 보여준다.

1. 강렬한 傳世 욕구

유가 이데올로기는 여성이 문자를 익히고 자신의 생각을 문자로 담아내는 자체를 不德한 것으로 규정하여 철저히 금기시하였다. 그러나 금원은 스스로 결심한 유람에의 의지를 행동에 옮겼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강렬한 욕구를 표명하고 있다.

생각건대 지난 일 지나간 경관은 바로 눈 깜짝하는 한 순간의 꿈일 뿐이니
만약 문장을 써서 그것을 전하지 않는다면, 누가 오늘의 금원이 있었음을
알겠는가¹⁵⁾

금원은 당시 일반 여성들과 달리 女工의 임무대신 글을 익힐 수 있었다. 또 여성들의 여행이 가문 내의 직무 수행이라는 극히 제한된 경우어나 가능한던

15) 『湖東西洛記』 惟其往事過境 其瞥然一夢耳 苟無文以傳之 則孰有知今日 之錦園者乎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자의에 따라 유람에의 결심을 실행에 옮겼던 인물이다. 나아가 대부분의 여성 기행문들이 오로지 가족 구성원들 간의 소통을 목적으로 기록되었던 것에 비해 금원은 유람의 기록이 오직 자신을 알리기 위한 것임을 명시하여서 그 강한 자의식과 자아표출에 대한 욕구를 짐작해 볼 수 있게 한다.

삼월 초순 금아 가서 스월 초상 환가흔 후 심회 울적하고 스친심회 지향업서 금형일괴를 호여 노친니괴 뵈옵조고 우연이 시작을 호엿더니 밀엇던 가스도 분별 허다호여 마음이 전일치 못하니 갓득 무식 단문의 어불성설호고 금형일괴라 하여시나 왕스형설호여 실상 일괴도 아니요 외즈낙셔의 성즈를 못호엿시니 업시호려다가 두 곳 노친괴 뵈와 잠시 소일 되시고 옷즈오실가 역시 위친홀 일이니 친가 동괴와 제덜은 흥으로 웃지 말고 남 보이지 말라 줄줄이 곳칠 말도 만코 지질도 괴약호니 다란 칙의 변열호즈 호는 슈지로 업시호라 호오니 남보이지 말오쇼셔¹⁶⁾

『湖東西洛記』와 비슷한 시기에 창작된 기행가사『금행일기』의 한 부분이다. 이 부분은 작품 후반부에 附記된 작자의 跋文으로 작품의 창작 경위를 밝혀 보여준다.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 두 노친에게 보여 잠시 소일하게 하고, 친가와 구가의 동기와 제 질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창작의 주된 목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조선 후기 대부분의 여성 기행문들은 가문 내의 소통을 목적으로 창작되었다. 또 대부분의 작품들이 전·후반부에 생략된 내용이나 미흡한 표현에 대한 염려와 함께 보고 나서 남에게 보이지 말라는 당부의 말을 빠뜨리지 않는 특징이 있다.¹⁷⁾ 이에 비해 금원은 여행의 계획과 실행, 그 결과의 기록에 이르기까지를 온전히 자신의 주도하고 있으며 후세에 자신의 존재를 확인해 줄 유일한 수단으로 『湖東西洛記』를 남기고자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 후기의 급격한 사회적 변화는 문학을 통해 드러나는 여성들의 자의식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여성이 자신의 생각을 기록으로 남긴다는 것은

16) 김수경, 「『여행』에 대한 여성적 글쓰기 방식의 탐색」,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7,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6, 55쪽, 재인용.

17) 김수경, 전계 논문, 58쪽.

그것이 자기표현을 의도한 것이든, 가문내의 소통을 위한 것이든, 문자를 익혀 기록을 남겼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일정정도 규범이 재단하는 여성상에서 이탈하고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작품을 남기고 있는 여성문인들이라면 당시 여성 일반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주체적 자의식을 지녔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러나 그들마저도 글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기록으로 남긴다는 일은 적지 않은 사회적 비난을 감수해야 했던 현실적 제약으로 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다. 따라서 여성의 글쓰기는 그와 같은 제약과 비난으로부터 어떤 식으로든 스스로와 가문을 방어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서야 가능한 것이었다.

임윤지당은 조선 최고의 여성 성리학자로 일컬어지며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독자적인 성리학 이론을 정립하였던 인물이다. 그는 성리학 범주 내에서 남성과 여성 각각의 본성의 차이를 인정하고 각기 분수에 맞는 성인이 되는 것을 학문의 목표로 삼은 만큼 시대를 앞서는 여성의식의 소유자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임윤지당의 경우도 여성의 문학창작에 대해서만은 유가의 법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역설하였다.

유인은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부녀자들이 서적에 몰두하고 문장을 짓는 데 노력하는 것은 법도에 크게 어긋난다. 그러나 『소학』이나 사서 등의 책을 읽고 심신을 수양하는 자산으로 삼는다면 무방하다"고 하셨다¹⁸⁾.

윤지당의 시동생 신광우가 『允摯堂遺稿』를 간행하면서 그녀의言行과人品 및 여러 가지 행적들을 정리하여 붙인 것 중 일부이다. 신광우가 밝히고 있는 것처럼 윤지당은 여성이 문학하는 것을 법도에 어긋나는 것으로 단정하고, 다만, 『小學』이나 四書 등의 책을 읽어 심신을 수양하는 자산으로 삼는 것만은 타당하다고 하였다. 주체적 자의식으로 성리학을 재해석해 내고 그 적극적인 수용과 실천에 이르기 까지 당대 여성 일반의 사고를 앞서 갔던 윤지당이었지만 여성이 문장을 짓는 것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은 그대로였던 것이다.

이처럼 시대를 같이 했던 다른 여성 문인들의 경우와 비교해보아도 기록을

18) 이영춘, 『임윤지당』, 해안, 1983, 282쪽, <後記>

孺人嘗言：婦女耽書籍 攻詞章 乃大踰閑 若小學 四子等書讀之 以資身心 可也

통한 자기 존재의 확인이라는 금원의 강렬한 열망은 독보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후대인들이 자신의 존재를 기억하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스스로 문장을 써서 전하고 싶어 했던 금원의 욕구는 동시대를 살았던 수많은 여성들을 앞서는 획기적인 것이었다.

2. 여성의식¹⁹⁾의 강화

금원은 글의 첫머리에서 만물의 同과 不同이 모두 天地造化의 일부임을 밝혔다. 그리고 다양한 인간의 삶의 행태를 ‘남녀부동’이하 부동의 제 양상들로 규정하고 있다. 조선 사회에서 남녀의 공간은 집 밖으로 통칭할 수 있는 공적인 영역과 규문 안이라는 사적인 영역으로 철저히 분리되어 존재했다. 금원은 남녀가 각기 달랐던 사회적 영역에 대한 적극적인 극복의 방식, 즉, 여성이 철저히 배제되었던 집밖의 영역인 금강산을 향해 유람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게 된다.

산은 본래 하나이나 끝내 만 가지로 흩어져 수많은 모습의 서로 다른 산이 있고, 물은 본래 만 줄기이나 끝내 하나로 모여 일천 물결 일만 굽이의 다름이 있다. 하늘로 나르고 물 속에 잠기는 동식물의 기이한 형상의 같음과 다름이 조화의 자취가 아님이 없다. 인간이 태어날 때 음양과 오행의 정기를 타고나서 만물보다 신령스러우나 남자와 여자의 다른 재기의 높낮음 식견과 풍도의 크고 작음과 장수와 요절 빈부귀천도 만물마다 다르다²⁰⁾.

작가는 천지가 다르듯이 만 가지로 흩어진 산 갈래와 수 만 줄기 서로 다른 물결들이 각각의 고유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각기

19) 여성의식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여성이 갖는 자기 정체성 내지는 자의식과 같은 의미로 통칭된다. 즉, 남성과 다른 여성성, 여성 일반과 구별되는 문제 여성의 개성, 시대(현실)에 따라 관습적으로 인식되던 대여성관, 혹은 동일 계층 여성들과의 차별성 등을 의미한다. 본고에서는 ‘여성의식’이라는 용어를 타자(남성 중심 사회에서의 남성)에 의해 압도되지 않고 여성 스스로 자신이 삶의 주체자임을 인식하여 자기실현을 위해 도전하고자 하는 정신을 의미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용하였음을 밝혀 둔다.

20) 『湖東西洛記』 山本一而終散於萬 有百態千狀之不同 水本萬而終會于一 有千波萬折之不同 飛潛動植奇形異狀之同與不同 莫非造化之迹也 人之生稟得二五之精靈於萬物 而男女不同才氣之高下 識量之大小 與夫壽夭貴賤貧富 亦萬有不同

다른 양태로 존재하는 자연 만물이 끝내는 하나로 모이고 또 다시 흩어지는 변화와 그 융합에 주목하고 있다. 나아가 남녀의 다름, 계급과 신분의 차이가 또한 천지의 조화와 변화라는 대자연의 이치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 것임을 보여준다.

인간의 삶을 말하여 남녀부동 이하 허다한 부동을 들면서 행복과 불행의 부동이란 구절로 결론을 맺으니 그 가운데 무한한 감개의 뜻이 있다. 그런고로(是以) 이하 또 부동함을 서술하면서 낙魄鬱悒(落魄鬱悒)으로 맺어 스스로 밝게 펴니 더욱 그가 세상을 이롭게 할 만한 그릇을 가슴에 품고 불평으로 울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거니와 유람의 뜻은 이에 이르러 긴절해진다²¹⁾

금원의 동생인 경춘이 『湖東西洛記』 末尾에 쓴 訂의 한 부분이다. 언니인 금원이 남녀 부동의 현실을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부당한 울결을 풀어내는 것을 유람의 대의로 삼고 있었다는 것을 밝혀 보이는 대목이다. 조선은 男女七歲不同席, 夫婦有別 등 남녀 근본의 다름을 역설하는 治者의 윤리가 지배하던 사회였다. 그런데 금원은 남녀의 不同이 근본의 다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각기 천지조화의 한 부분으로서 존재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유람이라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浩然之氣 실현의 한 방편이었으며, 문장의 기세를 기르기 위한 중요한 과정으로 여겼던 남성의 유람과 자신의 금강산 유람을 동질의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남성의 유람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유람 또한 다양한 인간 군상의 일부로 천지와 조화를 이루기 위한 한 과정이었음을 역설하고 있다. 여행 자체가 여성으로서의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던 당시에 금원이 보여주는 여행에의 기대와 포부는 그 사고의 독자성 내지 주체성을 확인할 수 있게 하기에 충분하다.

일반적으로 여성 기행문들은 출발 전의 과정이나 여행의 동기를 밝힌 부분이 다른 부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확대된다는 특징을 지닌다²²⁾. 조선의 여성

21) 『湖東西洛記』 言人之生而自男女不同以下 歷舉許多不同而結之 以幸不幸不同之句中 有無限感慨之意 是以以下又叙其不同者而結之以落魄鬱悒以自暢舒 則益見其懷利器鬱結不平而遊覽之意 到此緊切矣

22) 김수경, 전계논문, 54쪽.

들에게 허락된 생활공간은 철저히 규문 내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남성의 유람 기에서 보다 여행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확대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이에 비해 금원은 여행 자체를 목적으로 하였으며 유람의 결심과 실행 모두를 자신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적극적 자의식을 확인해 볼 수 있게 한다. 그 신분상의 특수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남녀 부동의 여성 현실을 자각하고 그것을 유람이라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극복하고자 했다는 사실은 금원을 주체적인 자의식의 소유자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금원이 선택한 유람에의 결행은 여성에게 가해졌던 부당한 억압과 금기를 주체적으로 인식한 결과였으며, 여성인 금원 스스로가 남성과 동등한 자격을 부여한 결정²³⁾이었다.

“여자가 남자옷을 입는 것은 결코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하물며 인정이란 무궁한 것임에랴 군자는 죽음을 알아 그칠 줄을 알기 때문에 절제하여 지나치지 않으나 소인은 감정에 끌려 곧바로 행하기 때문에 휩쓸려가서는 돌아오는 것을 잊어버린다. 이제 나는 좋은 경치를 두루 즐겼고 오랜 소원을 이제 이루었으니 그만하는 것이 좋으리라 본분으로 돌아가 여공에 종사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하고 남자 옷을 벗어 던지니 예천처럼 아직 머리 올리지 않은 여자였다.²⁴⁾

유람을 마친 금원은 스스로 남장을 벗고 일상으로 돌아와 ‘女工’에의 종사를 다짐한다. 여성의 현실에 대한 적극적인 극복의 방편으로 스스로 유람에의 결심을 실행에 옮겼을 때처럼 온전히 본인의 의지에 따라 현실인 규문 안으로의 복귀를 다짐하고 있는 것이다. 남성 사대부들과 같은 樂山樂水의 체험을 목적으로 유람을 결행하였던 것을 생각하면 女工 종사라는 현실로의 회귀는 일견 금원의 주체적 자의식의 좌절로도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적극적인 현실의 수용이라는 측면에서 해석할 때 훨씬 논리적 타당성을 얻게 된다. 여성인 채로는 한 치도 남성이 중심이었던 사회로 나갈 수 없었던 당시 시대적 분위기를 고려한다면 남녀가 부동한 현실에 대한

23) 손영화, 전계 논문, 170쪽.

24) 『湖東西洛記』 女兒男裝 極非常事 人之情無窮已焉 君子知足而能止 故節而不過 小人經情而直行 故流忘返 今余壯觀庶償宿昔之願 斯可止矣 還他本分 從事女工 不亦可乎 遂脫去男服 依舊是未笄女子也

전면적인 부정 혹은 그러한 현실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만을 주체적 자의식의 발현으로 해석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스스로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여공예의 임무를 위해 기꺼이 다시 규문 안으로 복귀했던 금원의 자세는 현실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이라는 관점에서 또 다른 측면의 주체적 자의식을 구체화한 것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한편 금원은 삼호정 시사를 열어 개인의 자의식을 초월하는 여성으로서의 주체 의식, 여성 연대 의식의 강화에 이르기까지 사고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다섯 사람이 서로의 마음을 알아 서로 도움이 되는 친구가 되고, 또 아름답고 한가로운 땅을 차지해서 꽃피고 새 울며 구름과 안개 낀 날이나 비바람 불고 해뜨고 달뜨는 날이나 모두 아름답게 여기지 않은 날이 없고 즐거워하지 않은 날이 없다. 혹은 더불어 거문고를 뜯고 음악을 들으며 맑은 흥을 내었다. 담소하다 틈이 나서 친구가 흘러 움직이면 그것을 드러내어 시를 쓰니 맑은 것도 있고, 고아한 것도 있으며 건강한 것, 예스러운 것, 맑고 질탕한 것, 강개한 것이 있어 그 좋고 나쁨을 알지 못하나 성정을 도야하여 한가로이 즐기는 것은 똑같았다.²⁵⁾

삼호정 시사는 남성 중심의 문화 공간에서 여성들만의 문화 공간을 만들어 냈으며 가족 이외에는 여타의 사회적 관계 맺기가 불가능했던 여성들이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²⁶⁾ 더구나 모임의 성격이 단순히 사회적 관계 형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문을 창작하고 그에 대한 서로의 의견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문학 집단의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보자면 삼호정 시사의 결성은 여성 문학사에 있어 일대 혁신을 가져 왔다고 할 수 있다. 개인적이고 은밀한 것이어야 했던 여성들의 문학활동이 집단적이고 표면화되기 시작하는 계기를 이루게 되었던 것이다.

25) 『湖東西洛記』 五人相爲知心益友 又占勝地間區 花鳥雲煙 風雨日月 無時不佳 無月不樂 或與彈琴聽樂 以遣清興 而談笑之暇 天機流動 則發而爲詩 有清者 有雅者 健者 古者 澹湯者 慷慨者 雖未知其甲乙 而陶瀉性情 優遊自適則一也

26) 김경미, 「조선 후기의 새로운 여성 문화 공간, 삼호정 시사」, 『되살아 나는 여성』, 241쪽.

이런 과정에서 금원이 『湖東西洛記』의 후반부에 附記된 訂, 題, 書, 跋 등을 모두 삼호정 시사 문인들의 글로 채운고자 했던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여러 연구자들이 지적했듯이 당시 금원을 비롯한 삼호정 시사 문인들 대부분은 그 신분상의 특수성으로 인해 상당수의 사대부가 남성들을 교유의 대상으로 삼아 시문을 즐길 수 있었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그들의 글을 수록하여 남성 중심 사회의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금원은 철저히 남성들을 배제하고 오직 삼호정 시사 동료들의 글만으로 문집을 채워서 여성이 중심이 되는 여성 의식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같은 시기 서얼, 중인 등 위향인을 중심으로 형성된 문학 집단들이 양반 사회를 향해 예리한 비난과 질타를 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문집에 양반 사대부들의 序나 跋을 실어 끊임없이 사회적 인정을 얻고자했던 것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극복할 수 없는 신분적 한계를 분명하게 인식한 위향 문인들이 문학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양반 사회로의 진입이라는 간절한 소망을 담아낸 것이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결국 금원이 『湖東西洛記』에 삼호정 시사 동료들의 글만을 수록했던 것은 그 강렬한 여성 주체의식에 기인한 것이며, 부동한 양태로 존재해야 했지만 남성과 다를 바 없는 자연 군상의 일부로서의 여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여성 연대를 통해 극복하고자 했던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IV. 결론

『湖東西洛記』는 조선최초의 여성 유람기라는 단선적인 평가만으로는 규정지을 수 없는 당대로서는 독보적이었던 금원의 자의식 세계를 담고 있는 작품이다. 당시 대부분의 여성들은 남성과 여성의 범주를 명확히 양분하였던 유가 이데올로기에 대한 숙명적인 수용 혹은 그 철저한 내면화를 다짐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기록을 통한 자의식의 표출이라는 측면에서 일정정도 이데올로기가 재단하는 여성상을 일탈하고 있는 일부 여성 작가들의 경우마저도 실제로는 유가 이념에 대한 주체적인 수용이라는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금원은 남녀 부동의 제 현실에 대해 여행이라는 독자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대를 살아가는 여성으로서의 한계와 그에 대한 적극적인 극복 의지까지를 보여주고 있다. 금원에게 여행은 천지자연과의 조화를 위한 실천적 과정이었으며, 현실을 향한 적극적인 자아 표출의 한 과정이었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당대 현실에 압도되어 스스로가 자신의 삶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남성 타자에 의해 주도되는 삶을 살아야 했던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금원의 사고와 실천의지는 남성 중심 이데올로기에 대한 도전의 시작이었다고 할 수 있다.

본고의 논의는 기존 연구들이 독보적이었던 금원의 자의식에 집중되었던 것에서 벗어나 텍스트 자체를 분석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자 하였다. 즉, 유람기로서 『湖東西洛記』에 보이는 記述상의 특징을 고찰하였으며, 유람 외적인 기록을 통해서는 금원 의식세계의 특성을 규명하였다. 그리고 작가 금원이 이 두 가지 특성을 어떻게 작품으로 구체화 시키고 어떤 방식으로 조합해 내는지를 조명하여 『湖東西洛記』가 갖는 문학적 의의를 살펴보았다.

금원은 실제 여행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오감을 자극하는 다양한 용어들을 가져와서 실경에 대한 감각적인 묘사를 보여주었다. 그러면서 동시에 풍부한 전고와 실제적인 고증을 통해 자신의 지적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것에도 주력하였다. 체험적 실증과 풍부한 전고를 사용해 자신의 지적 재능을 극대화 시켜 보이려고 했던 금원이 다른 한편으로는 감각적이고 직관적인 자연 경물에

대한 완상과 그 몽환적인 표현을 통해서 현실에서는 이를 수 없는, 남성과 대등한 존재로서의 여성, 천지조화의 일부로서 자신을 표출하고자 했던 것이다.

한편, 유람 외적인 기록을 통해서도 당대 여성으로서의 현실 인식,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독보적이었던 여성의식 등 금원 사유 체계의 특성을 집약적으로 보여주었다.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하였던 일부 사대부가 여성 문인들마저도 가부장적 사회 인습이 부여한 성 역할에 길들여져 글을 써서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던 시기였다. 그러나 금원은 유람의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서까지 자신의 존재를 확인받고자 했던 강렬한 전세 욕구를 지녔던 인물이었으며, 『湖東西洛記』 편찬과정에서 보여주었던 삼호정 시사 동료들과의 여성 연대 의식은 시대를 초월한 것이었다.

금원은 여성을 규정하는 사회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강인한 자의식으로 자기실현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그녀가 보여주는 여성으로서 자기 확인과 그 표출 과정에서 보여주는 독자성은 그 자체만으로도 시대를 압도하고 있다. 『湖東西洛記』는 금원의 이러한 작가의식을 여실히 보여주는 작품이다. 소극적, 내부 수렴적이었던 사대부가 여성 문인들의 경우와 달리 적극적이고 외부 발산적인 여성의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여성이 자신의 정체성에 눈 뜨고 여성의 문제를 탐색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湖東西洛記』가 갖는 문학적 의의와 가치를 새롭게 평가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허미자 편, 『한국여성시문선집』 5, 국학자료원, 2004.
- 이영춘, 『임윤지당』, 해안, 1983.
- 소식, 「동파집」 권33, 『소동파전집』 4, 영인본, 경인문화사, 1983.
- 김경미, 「조선 후기의 새로운 여성 문화 공간, 삼호정 시사」, 『되살아 나는 여성』, 241쪽.
- 김관식, 『조선조 강원 여성 한시문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미란, 「조선후기 여류문인 연구」, 『국어국문학』 117, 국어국문학회, 1996.
- 김수경, 「'여행'에 대한 여성적 글쓰기 방식의 탐색」,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7,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6.
- 김지용, 「삼호정 시단의 특성과 성격」, 『아세아 여성연구』 16, 숙명여대 아세아 여성연구소, 1977.
- 손영화, 「조선조 여성되기의 새로운 모색- 김금원의 <호동서낙기>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39, 국어문학회, 2004.
- 안난옥, 『김금원의 <호동서낙기>연구』, 성균관대 석사학위 논문, 1999.
- 양 희, 『삼호정시단의 한시 연구』, 중부대 박사학위 논문, 2008.
- 이효숙, 「<호동서낙기>의 산수문학적 특징과 금원의 유람관」,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0,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7.
- 장인애, 「삼호정여인들의 한시 연구」, 『세종어문연구』 제25집, 세종어문연구회, 2007.
- 차옥덕, 「김금원의 시에 대하여」, 『고전문학연구』 15, 고전문학연구회, 1999.

<Abstract>

A study on 『Ho Dong Seo Nak Gi』

Baek Min Ja

『湖東西洛記』 or <HodongSeonaki>, well-known as the literary work of Women's Journey Story written for the first time in Joseyon Age, reflects the unique and independent world of self-awareness that the main characters, Gyumwon has. Thus,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at the work merely portrays journey that a woman takes.

Unlike most women, Gyumwon tries to find out solutions to the practice where the Joseyon Age required that men and women can not sit together or talk , face to face'

In addition, she makes efforts to overcome the restrictions put on women, as much as she can.

or Gyumwon, journey is the active practice task to harmonize universe earth, heaven and nature, and the same time, is the road to active self-reflection.

This work depicts sensory descriptions on natural landscape, through colorful languages and words in the process of recording journey. Also, this work focuses on showing how much intellectual ability a women has on the basis of abundant authentic and historic data

Moreover, a strong sense of identity to identify her own presence by recording journey experiences, and a strong sense of solidarity to form with her colleagues of < Samhojeong Poem Phrases>in the course of publishing 『湖東西洛記』 or <HodongSeonaki>, seem to surpass the world.

Gyumwon leads the world independently by identifying and expressing her self-awareness.

『湖東西洛記』 or <HodongSeonaki> not only represents this subjective awareness that the author has, but also, mirrors the image of active and extrovert women instead of image of passive and introvert women. In the sense, it deserves to make the new evaluation on the work in aspects of the cultural value and significance.

Keywords : Active Self-Reflection, Colorful Words and Language,
Authentic and Historic data, Sense of Identity,
Women's Solidarity Awareness

이 논문은 2011년 1월 14일에 투고되었으며, 2011년 2월 6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1년 2월 11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